

魔의 3회 벽 넘어야 산다



KIA 타이거즈 투수 한승혁

3회 피안타율 0.396...볼넷도 최다
짧은 이닝 소화에 불펜 부담도 가중
오늘 삼삼전 선발...개인 6승 도전
팀 선발진 승률 '뚝'...믿음 보여야 정착

3회를 넘어야 6승 간다.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은 27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다. 한승혁은 물론 팀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경기다.
위기의 선발진에서 확실한 선발로 자리를 굳혀야 하고, 삼성의 기세도 막아야 한다.
한승혁은 올 시즌 선발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세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한승혁은 지난 21일 kt를 상대로 한 후반기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한승혁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야수들과 불펜들이 만들어준 승리"라며 "다음에는 더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승혁은 69개의 공을 던지면서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3-1의 박빙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승혁의 역할은 5회에서 끝났다. 벤치에 아직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승혁은 자신의 등판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
특히 '3회'의 위기가 또 반복됐다는 부분이 경기를 복기한 한승혁에게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날 한승혁은 3-0으로 앞선 1·2회 1사에서 안타와 볼넷으로 주

자를 내보냈지만, 병살타로 바로 이닝을 정리했다. 하지만 연속 안타로 시작한 3회 희생플라이로 1실점을 했고, 다시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2루의 위기에 몰렸다.
강백호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152km 직구로 삼진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수습한 한승혁은 1루수 김주찬의 좋은 수비로 땅볼을 만들어 어렵게 3회를 넘겼다.
1회 7개, 2회 12개의 공을 던졌던 한승혁의 투구수는 3회에는 25개까지 올라갔다.
올 시즌 한승혁은 유독 3회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3회 가장 많은 21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0.396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볼넷도 3회 가장 많은 8개를 남겼다.
"마의 3회"를 넘기느라 진땀을 흘리면서 한승혁의 긴 이닝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26일 경기 전까지 구원으로 나온 두 경기를 제외한 13경기에서 한승혁은 63.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평균 5이닝에 살짝 부족할 수 있다.
KIA는 최근 선발 위기에 빠져있다. 팻던의 보직 전환에 이어 임기영이 부진으로 2군에서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선발진의 소화 이닝과 승률이 뚝 떨어졌다. 그만큼 불펜의 부담은 늘었다.
불펜에 승통을 띄울 수 있는 한승혁의 긴 이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반기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삼성의 상승세를 막아야 한다.
KIA는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삼성과 홈경기를 가졌다. 결과는 1승 2패. '아기 사자' 양창섭에 다시 한번 승리를 내주는 등 후반기 시작부터 위정거렸다. 반면 상승세를 탄 삼성은 승수 쌓기에 속도를 내면서 6위 자리를 놓고 KIA와 잊치락뒤치락하는 사이가 됐다. 한승혁이 '마의 3회'를 넘어 마운드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새 집 짓는 한화

대전시, 한밭구장 옆 야구장 신축
2024년까지 2만2000여석 규모

대전시가 2024년까지 한밭야구장(한화생명야구 스파크) 바로 옆에 2만2천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건립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시정브리핑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 야구장 건립 장소는 한화야구스파크 옆 한밭종합운동장 부지다.
시는 이 운동장을 이전한 뒤 그 자리에 2024년까지 2만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전문기관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은 최근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 시는 용역을 통해 야구장 현황을 분석하고 입지조건과 기본구상 타당성 여부, 경제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밭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새 운동장 위치, 규모, 재원 조달방법도 함께 살펴본다.
시는 야구장 건립에 1360억원(토지비·철거비 제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야구장 건립비는 시비 6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00억원은 한화 자금(400억원)과 국비(300억원)로 각각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문화, 예술, 공연,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물론 다른 지역 원정팬이 야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준공된 지 54년이 넘는 한화야구스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힌다.
야구장 규모가 1만3000석에 불과한 데다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협소해 연간 6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 복귀전 '펼 펼~'

"물 만났네" 정현(한국체대)이 26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APT 투어) 단식 2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애틀랜타오픈 8강 진출
부상 털고 두달 반만에 출전
ATP 투어 위기관리 지수 1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위·한국체대)이 올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위기에 강한 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현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BB&T 애틀랜타오픈(총상금 66만8460 달러) 단식 2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65위·미국)를 2-0(6-4 7-6(7-5))으로 제압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 곧바로 2회전부터 시작한 정현은 2개월 만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5월 초 마드리드오픈 1회전 탈락 이후 발목 부상 때문에 쉬는 사이 정현은 ATP 투어가 집계하는 위기관리 지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위기관리 지수는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살리는 확률, 반대로 자신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혔을 때 막아내는 확률, 타이브레이크 승률, 마지막 세트 승률을 지수로 환산한다.
정현은 247.6점을 받아 246.9점의 니시코리 게이(20위·일본), 246.7점의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4위·아르헨티나)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는 245.5점으로 5위,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은 238.7점으로 7위다.

정현은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가져올 확률 43.6%로 7위, 상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막아낼 확률 65.2%로 19위에 올랐고 타이브레이크 승률은 69.6%로 4위를 기록했다. 또 마지막 세트 승률은 69.2%로 15위다.
정현은 ATP 투어와 인터넷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평정을 유지하며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며 "공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비결을 설명했다.
정현은 10주 만에 승리를 따낸 이후 "두 달 정도 부상 기간이 있었는데 승리해서 행복하다"며 "더워 힘들었지만 매 포인트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상대가 서브가 워낙 좋고 포핸드도 위협적이었는데 힘든 경기에서 이기고 코트에 복귀해 기쁘다"고 즐거워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콜로라도 이적

토론토, 유망주와 1대 2 트레이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한국인 불펜 오승환(36)이 곧 콜로라도 로키스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26일 오승환의 트레이드가 임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토론토는 오승환을 콜로라도로 보내고 야수 유망주인 선 부샤드와 체드 스펀버거를 받는 1대 2 트레이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론토와 콜로라도 구단은 트레이드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일간지 토론토 선은 "미네소타 트윈스에 6-12로 패한 뒤 오승환과 통역이 클럽하우스에서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며 트레이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승환은 토론토의 다음 경기가 열리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로 팀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환의 에이전트 관계자는 "양 구단이 트레이드에 합의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신체검사 결과 승인이 안 났다"며 "오승환은 시카고로 토론토 동료와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환이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시카고에서 곧장 콜로라도 주 덴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환이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으면 1년 만에 내셔널리그로 복귀한다. 그는 2016~2017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었다.
또 김병현, 김선우에 이어 오승환은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삼는 세 번째 한국인 투수가 된다.
콜로라도는 25일 현재 53승 47패를 올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달린다. 지구 선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승차는 2경기에 불과해 언제든 1위를 넘볼 수 있다.
지난 2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토론토와 계약 기간 1+1년,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한 오승환은 올해 48경기에 등판해 4승 3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68을 거뒀다.
47이닝 동안 삼진 55개를 잡았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WHIP) 1.00의 양호한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